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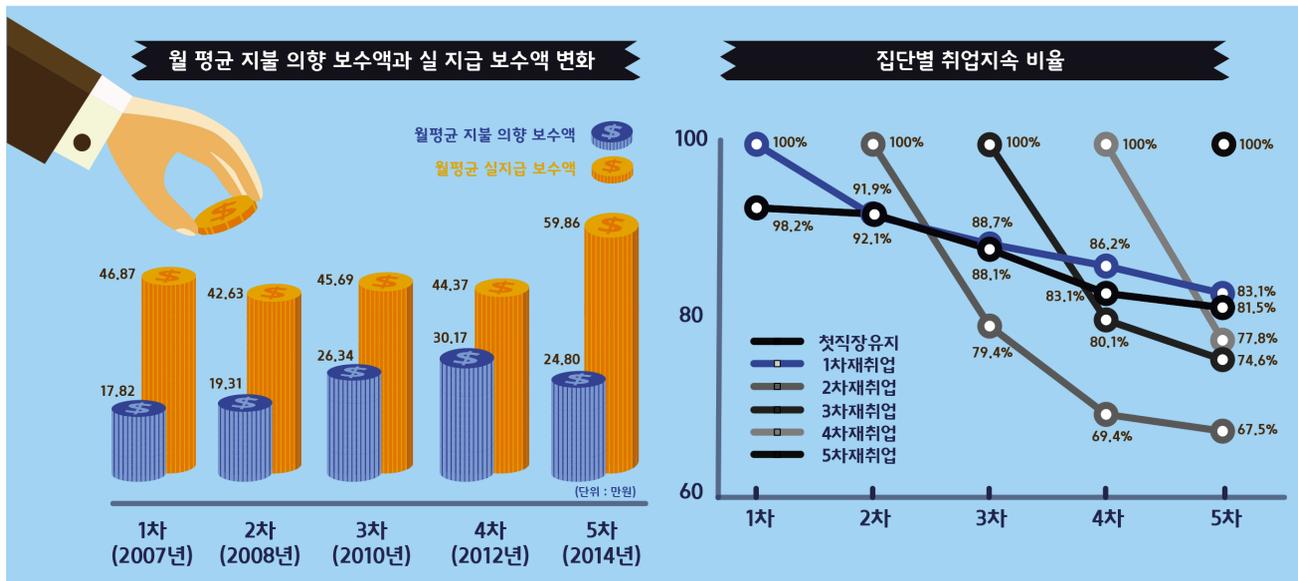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주재선 연구위원 (Tel:02-3156-7192 / e-mail: jjs2000@kwdimail.re.kr)

## 여성가족패널로 본 여성 삶의 변화\*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는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된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로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 삶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 여성가족패널조사 주요 결과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기존 종단조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되었으며 다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첫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 조화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여 우리 사회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 수 있게 구성함.
- 둘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대해 광범위하게 추적함으로써, 여성 및 가족정책 수립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을 1차 웨이브 패널로 조사했고 2016년 6차 웨이브 조사했고 2016년 6차 웨이브 조사를 실시함.

2016년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1차 연구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추진됨.

- 첫째, 6차 웨이브 본 조사 실사와 패널 관리를 통해 여성가족패널 구축
- 둘째, 1~5차 웨이브 조사를 활용한 종단적 분석과 여성가족정책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셋째, 1~5차 웨이브 자료의 일반인 릴리즈와 학술대회(국내, 국제) 개최, 여성가족브리프 발간(년 2회), 패널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여성가족패널의 활용과 비교를 확산

## 1. 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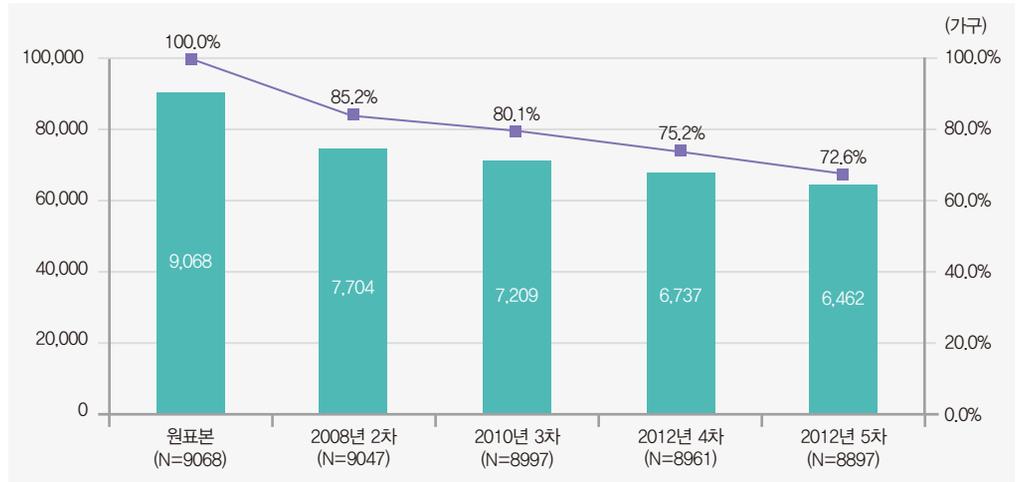
- ④ 여성의 삶은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남.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시장 관련 요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및 관계, 사회 및 문화적인 의식과 관습 등 노동시장 밖의 요인의 변화 등과 연관 되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됨.
- ④ 이러한 여성 삶의 변화는 종단조사를 통해 구축해야 하며, 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패널조사를 통해 일부 구축할 수 있으나, 이들 패널 조사는 대부분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거나 여성 사례수가 부족하여 여성의 하위집단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더욱이 이들 조사는 여성의 삶에 분석하기 위한 최적화된 조사도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여성 삶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음.
- ④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등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패널조사인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기획하고 2007년부터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④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시작하여 2015년 5차 웨이브 조사를 완료했고 2016년 6차 웨이브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 ♥ 여성가족패널유지율 및 차수별 이탈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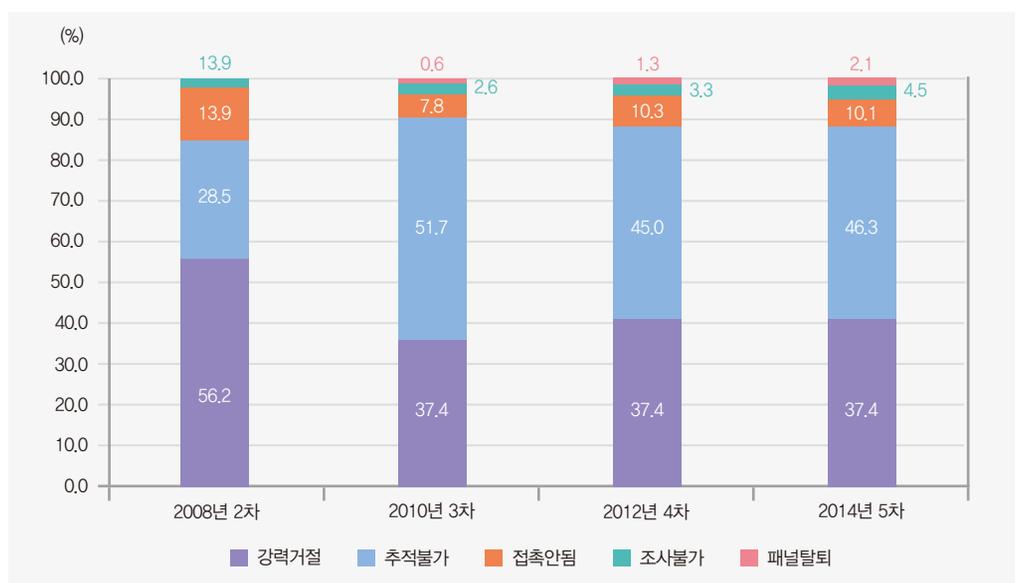
- ▶ 패널 유지율은 5차 웨이브 조사가 완료된 현재 72.6% 임. 패널유지율은 2차 웨이브 조사 시 85.2%, 3차 웨이브 조사 시 80.1%, 4차 웨이브 조사 시 75.2%로 차수별 5%p 가량 하락했으나, 5차 웨이브 조사는 2.6%p 하락해 패널유지율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 차수별 이탈사유는 특징을 보면 최초로 이탈이 일어나기 시작한 2차 웨이브 조사에는 강력 거절이 5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3차 웨이브 조사에서 37.4%로 크게 낮아 졌음. 강력거절은 이후 4차 웨이브 조사(40.2%)와 5차 웨이브 조사(37.0%)에서 큰 변동 없이 37.0%~40.2% 수준의 이탈 비율을 보임. 반면 연락처 및 주소지 정보가 틀려 추적이 추적 불가능한 패널은 2차 웨이브 조사에서 28.5%, 3차 웨이브 조사에서 51.7%, 4차 웨이브 조사 45.0%, 5차 웨이브 조사 46.3%로, 이탈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편 외출로 인한 부재 등으로 접촉불가능 조사차수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조사불가와 패널탈퇴 사유는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차수가 증가하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그림 2]



## ♥ 여성 개인의 변화와 특징

- ▶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은 1차 웨이브 조사에서 77.3%, 2차 웨이브 조사에서 70.0%, 3차 웨이브 조사에서 64.6%로 결혼할 의향이 하락하다 4차 웨이브 조사에서 69.4%로 증가함. 하지만 5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63.1%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차 웨이브 조사 시 평균 5.19점에서 2차 웨이브 조사 4.91점, 3차 웨이브 조사 4.99로 하락하였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6.73점, 5차 웨이브 조사에서 다시 6.86점으로 증가함.

〈표 1〉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

(단위: 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5차 (2014년)	변동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1차→ 5차
평균	5.19	4.91	4.99	6.73	6.86	-0.28	+0.08	+1.64	+0.13	+1.67

주: '매우 불행하다'가 1점, '매우 행복하다'가 10점 기준임.

- ▶ 부부가 갈등이 있는 경우 원인으로 꼽은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이며, 1차 웨이브 조사 16.6%에서 2차 웨이브 조사 16.3%, 3차 웨이브 조사 16.3%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다 4차 웨이브 조사에서 12.1%로 1차 웨이브 조사보다 4.5%p 줄었고 5차 웨이브 조사에서 10.7%로 5.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두 번째 갈등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역시 5차 웨이브 조사에서 10.8%로 4차 웨이브 조사(11.2%)에 비해 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8.3%, 2차 웨이브 조사 7.9%, 3차 웨이브 조사 6.5%, 4차 웨이브 조사 5.8%, 5차 웨이브 조사 5.8%로 나타남.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5차 웨이브 조사를 기준으로 '자녀'가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부모(23.9%), 친정부모(23.3%)의 순임.
- ▶ 가사를 도와주는 분에게 얼마나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인 '월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은 1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17.82만원으로 나타났으나, 2차 웨이브 조사 19.31만원, 3차 웨이브 조사 26.34만원, 4차 웨이브 조사 30.17만원으로 상승하였다가 5차 웨이브 조사에서 24.80만원으로 다시 감소함. 그러나 실제로 지급한 월평균 보수액을 보면 1차 웨이브 조사 46.86만원, 2차 웨이브 조사 42.63만원, 3차 웨이브 조사 45.69만원, 4차 웨이브 조사 44.37만원으로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5차 웨이브 조사에서 다시 59.86만원으로 상승함.

〈표 2〉 월 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과 실 지급 보수액 변화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5차 (2014년)
월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	17.82	19.31	26.34	30.17	24.80
월평균 실지급 보수액	46.86	42.63	45.69	44.37	5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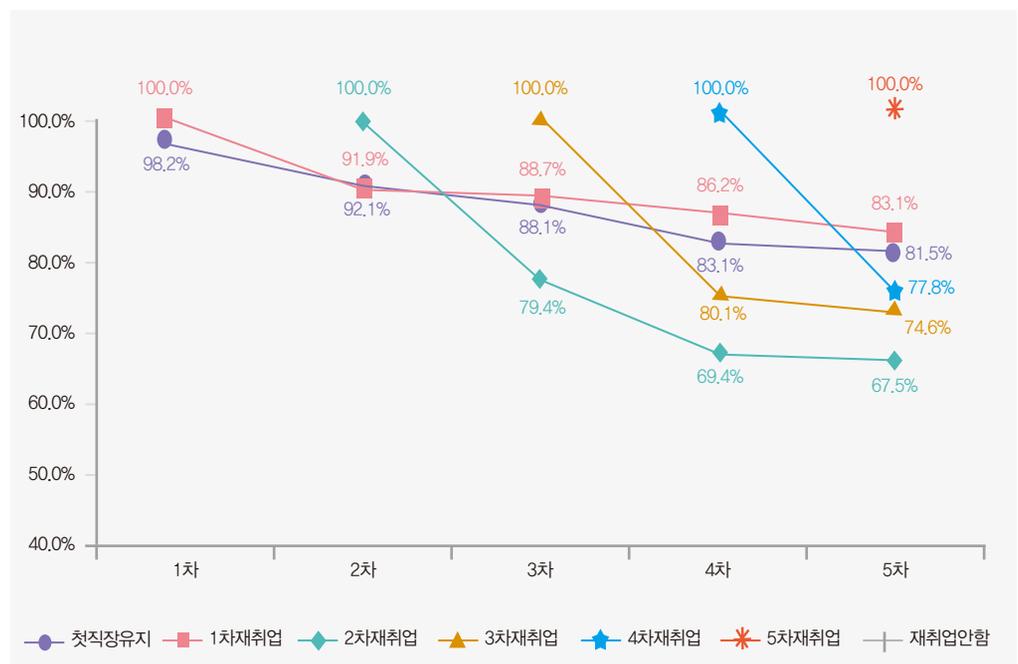
- ▶ 이혼 할 때 남편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받은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19.1%)에서 2차 웨이브 조사(29.4%)에서 늘어났다가 3차 웨이브 조사(17.8%)에서 다시 낮아졌고, 4차 웨이브 조사(26.8%)에서 다시 늘어났다가 5차 웨이브에서는 다시 15.6%로 줄었음.

-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본인과 전 남편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첫 번째 자녀의 양육비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에서 본인 23.44만원, 전 남편 9.31만원이었으며 5차 웨이브 조사에서도 본인 20.96만원, 전 남편 18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더 많음. 두 번째 자녀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는 본인 15.83만원, 전 남편 9.72만원으로 본인이 더 많았으며 이는 2차 웨이브 조사에서 4차 웨이브 조사까지 동일하였다. 그러나 5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본인 22.91만원, 전 남편 26.98만원으로 전 남편의 부담이 본인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남. 세 번째 자녀의 경우 2차와 4차 웨이브 조사를 제외한 1차, 3차, 5차 웨이브 조사에서 본인의 양육비 부담이 전 남편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전 남편의 양육비 부담 금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의 변화

- ▶ 이 논문은 패널자료의 장점을 이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두 개의 비교대상을 설정하였음. 첫째 비교대상은 첫 번째 직장을 1차 조사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단임. 이들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가지 않은 길”임. 이 길로 계속 갔으면 지금 어떤 취업상태일까를 보기 위한 비교집단으로 이 집단을 설정하였음. 둘째 집단은 자신의 첫 번째 직장임. 재취업 직장과 첫 번째 직장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비교하였음.
- ▶ 집단별로 보면 첫직장유지 집단은 1차 조사시점을 100.0%에서 조금씩 하락하여 5차 조사시에는 82.6%를 유지하고 있음. 경력단절 후 1차 조사 이전에 재취업을 한 집단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5차 조사시 83.1%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즉 1차 조사 이후에 재취업한 집단은 취업률의 감소세가 뚜렷함. 2차 조사시 재취업단 집단은 3차에 79.4%, 4차에 69.4%, 5차에 67.5%로 취업률이 하락하여 첫직장유지 집단 및 1차 재취업집단과 구분이 됨. 3차조사시 재취업한 집단 역시 2차 재취업집단과 비슷하여 3차시 100%에서 4차시 80.1%, 5차시 74.6%로 하락함. 4차 조사시 재취업한 집단은 4차시 100%에서 5차시 77.8%로 하락함.

[그림 3] 집단별 취업지속 비율



### ♥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결정요인 분석

- ▶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노동 시장 이탈의 결정 요인에 대한 탐색을 실시함. 이 과정에서 각 결정 요인들을 교육 수준과 출생 코호트로 나누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조사해 보고 그 동안 비슷한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도 함께 살펴봄.
-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1차부터 5차 웨이브 조사까지의 취업상태를 추적하면 약 70%의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1차 조사시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던 약 절반가량의 여성은 마지막 조사까지도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음. 둘째, 1차와 5차 조사기간 동안 모든 교육수준에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약 10%에서 15%정도 증가하였으며, 전문대졸 여성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을 밝힘. 셋째,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수준은 결혼 1년 이내의 노동시장 이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첫째자녀나 둘째자녀의 출산 1년 이내의 노동시장 이탈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 다섯째, 혼전임신 사실은 결혼 1년 이내의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62.4% 증가시키는 반면 성평등 의식이 1점 상승할 때마다 결혼 1년 이내에 노동시장 이탈과 둘째출산 1년 이내의 노동시장 이탈을 각각 5.2%와 8.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출생 코호트 별로 결혼과 초산 1년 내의 노동시장 이탈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 1년 내 이탈 확률은 편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초산 1년 이내의 확률의 편차는 급격하게 증가함.

### ♥ 남편의 가사참여가 아내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 이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가 아내의 일자리 유지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수준의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우선, 이론적으로 가사노동시간 배분 변화가 여성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변화가 아내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아내 가사노동부담을 완화하는 형태의 남편 가사노동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둘째, 여성취업 지지형 사회,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함. 셋째, 자녀양육 부담의 지속적인 완화가 필요함. 넷째, 가사노동시간 배분 변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 한국에서 기혼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현재 한국사회는 기존의 남계 중심의 가족제도의 가치가 약화되고, 전반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혼 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부모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까지 확장되는 변화를 맞이했음. 이에 따라 기혼 여성의 양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네 개 시점의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누구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유형이었음. 이는 경제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뜻함. 친정부모보다 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서 경제적 지원에 차이가 나타남. 멀리 떨어져 살수록 경제적 지원 제공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후속 작업이 필요함.

### 📍 가족내 모녀의 결혼가치관과 딸의 결혼가치관 영향요인 탐색

- ▶ 이 연구는 동일가구 내 엄마와 딸의 결혼관련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고 딸의 가치관에 대하여 엄마의 특성 및 가치관이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함. 구체적으로 딸의 결혼가치관과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엄마의 개인특성, 결혼만족도, 남편과의 관계, 결혼가치관과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함.
- ▶ 분석결과를 보면 딸의 결혼가치관과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등 가치관에 대하여 엄마의 가치관이 영향을 주고 있었음. 또한 엄마를 대상으로 측정된 가치관 변인이 딸의 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 3. 정책제언

### 📍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의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 ▶ 경력단절 후에 재취업 비율을 보면 첫직장을 유지하고 있던 집단에 비해 재취업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단 취업한 후에도 지속률이 첫직장유지 집단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 초기에 직업적응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여성 취업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재취업보다 경력단절의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함.
- ▶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정규직 비율이 첫직장에 비해 1/3가량밖에 되지 않아 여성고용의 불안정과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음. 첫직장 유지집단의 경우 학력에 따른 정규직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재취업시 정규직 비율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적거나 없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학력이 경력단절로 인해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정책에 있어 고학력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직종의 개발 또는 직업안내 등이 필요함.
- ▶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첫직장유지 집단에서 30대의 경우 고졸은 1차에 비해 5차에 절반가량이 퇴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해당 연령대의 취업 유지의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특히 특히 초대졸이상보다 고졸의 학력집단이 더욱 취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 임금/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여부, 경력단절여부, 연령, 학력, 직업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력단절과 비정규직화는 강한 연관성을 갖고 상호 임금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음.

### 📍 남편의 가사참여가 아내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 ▶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비율이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증가할 경우, 아내의 일자리유지와 재취업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남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가 여성의 일자리 유지와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남편 가사노동시간의 단순한 증가보다는 전체 가사노동시간에서 남편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통해 아내의 가사부담이 완화되어,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전체 가사노동시간 가운데 남성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성 가사노동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정시 출퇴근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성 적합형 가사도구 개발, 보급 등 남성친화적 가사노동 환경을 조성을 통해 남성 가사노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여성취업 지지형 사회,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함. 남편이 아내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이전년도보다 강화될수록 아내의 일자리유지 및 재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여성취업 촉진하게 위해서는 여성취업을 정서적, 문화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와 가족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여성취업 지지형 사회,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 미취학 자녀가 지속적으로 있거나, 새롭게 태어날 경우, 여성의 일자리유지와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자녀양육이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가사노동시간 배분 변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결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변화가 아내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됨. 남편과 아내 가사노동시간 배분의 변화를 아내의 취업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변화가 아내의 결혼생활만족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등 가족 관계와 남성 자신의 삶에 미치는 효과 등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 기대효과

- ④ 여성정책의 핵심적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제적 자립 증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빈곤화 방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④ 가족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가족의 객관적 사항에 의거한 가족정책수립이 가능.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수립과 현재 가족문제의 핵심적 사항들인 보육, 이혼, 동거, 가족의 다양화, 저출산, 노인부양, 빈곤 문제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④ 향후 다양한 집단의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체계적인 인력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참고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 1~5차 웨이브 조사 분석 결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